

# 《한국의 젊은 부자들》

젊은 부자들이 말하는 핵심 키워드 '시간'

글\_ 정균승<sup>1</sup>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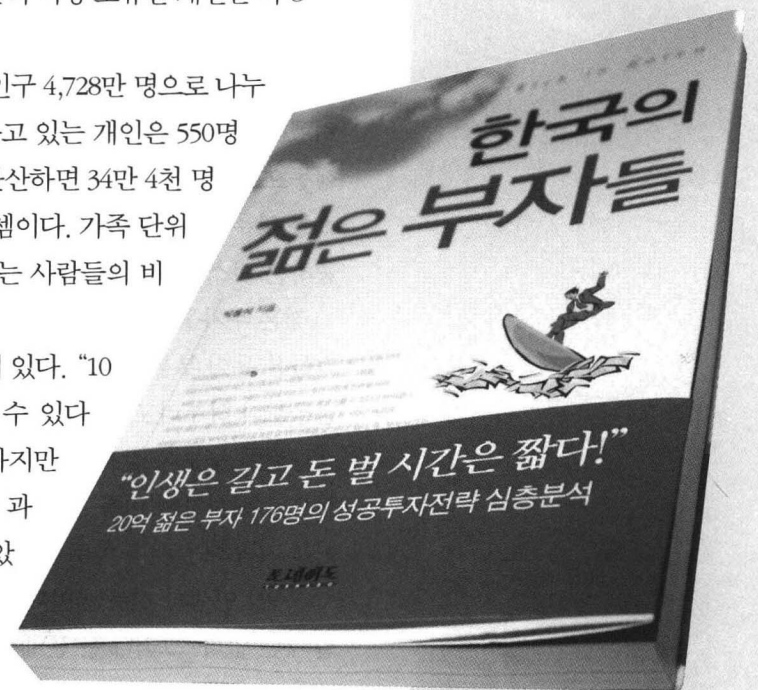
2006년 6월 미국의 금융회사인 메릴린치는 「제10회 세계 부자 보고서(World Wealth Report)」를 발표했다. 매년 한 번씩 주요 나라의 백만장자 수를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에서 주거 목적의 주택을 비롯하여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예금·주식 등 순금융자산을 백만 달러 이상 보유한 개인은 약 8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1월 1일 기준 전체 인구 4,728만 명으로 나누면, 현재 한국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550명당 1명꼴이다. 이들 개인을 다시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34만 4천 명이므로, 전체 인구의 약 0.73%가 백만장자의 가족인 셈이다.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따져도 현재 한국에서 백만장자 축에 드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다시 2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30대만 되어도 못 할 것이 없겠는데…”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과거는 잊어버리자.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멋지게 살았을 텐데’ 하고 과거에 집착하느니 차라리 ‘10년 후에 이렇게 된다면 참으로 멋질 텐데’ 하고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확실하게 그려두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닦아가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만약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삶을 설계하고 정열적으로 살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나기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10년 후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비록 그 형식은 ‘경제적 부’라고 하는 가치 척도를 가지고 판을 짜 나가고 있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나자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시는 대로 생각’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생각하는 방식대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를 체험하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이 찾아온다. 머리 속에 항상 부정적이고 가난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면, 사는 것 자체가



박용석 지음 | 토네이도 | 409쪽 | 값 12,000원

어둡고 찌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터득하려고 하면 내심 실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가가 수백 년 후에도 빛을 발할 만큼 훌륭한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꿈의 설계도를 구상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훌륭한 삶을 건축하기 위한 드림 빌딩을 구상하고 싶다면, 이 책은 아주 중요한 건축자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무릇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들이 그러한 것처럼 한국의 젊은 부자들 역시 동년배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성공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상식이라고 하는 중자를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지속적으로 열정과 끈기를 쏟아 부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가령 ‘저축을 하여 종자돈을 만든 다음, 안전한 곳에 투자하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이 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과 다른 깊은 눈으로 부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하여 나름의 부자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넓혀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정립하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아니라, 부자의 목표가 인생’임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치중하는 멋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젊은 부자들이 추천하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다. 그들은 돈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를 만든다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고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저축과 투자를 실행에 옮긴 주인공들이다. 일찍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시간은 돈이다’라는 진실을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여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저축하고 투자하여 이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비결임을 살짝 가르쳐준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돈이 결코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돈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야 하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너무도 끔찍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바야흐로 무형의 자원이 부의 핵심을 이루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부단한 자기관리와 자기계발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일군 것 못지않게 새로운 미래의 부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저자가 간추린 젊은 부자들의 좋은 습관들은 비록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꼭 챙겨두어야 할 덕목이 되기에 충분하다. 끊임없이 배우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하고, 숫자에 밝으며, 항상심과 끈기를 잃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평생을 두고 습관화해야 할 덕목들이 아닌가 한다. **◆**